

복스

어린이 책꽂이

▲아빠가 빈털터리가 됐어요=자상하고 친절한 아빠가 빈털터리가 되면서 달라지는 모습을 일곱살 오스롭의 눈으로 보여준다. 돈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아빠를 소재로 한 발랄한 내용과 재미있는 설정, 볼거리가 풍부한 그림이 돋보이는 책이다. (소년 한길·7천500원)

▲만화로 보는 중국신화(11권)=각종 문헌조사와 역사적 고증을 거쳐 동양문화의 원형인 중국신화를 만화로 재구성한 시리즈. '제11권 대홍수를 막은 우'에서는 뛰어난 신동력을 지닌 우가 순임금 다음으로 왕위에 오른 후 중국의 대홍수를 13년만에 다스리게 된 과정이 생생하게 펼쳐져 있다. (가나출판사·8천500원)

▲잃어버린 아이들=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 무렵까지 수단 내전으로 부모와 집을 잃고 고아가 된 한 소녀의 이야기가 다루고 있다. 고아가 된 수단의 어린이들이 길위에서 만나 집단을 이루고 살아남기 위해 서로 힘을 합쳐 먹고 힘든 길을 지나 피난처로 가는 과정과 난민수용소의 생활이 담겨 있다. (사계절·9천500원)

▲눈깜짝씨의 찌릿한 우주견문록=현직 과학교사가 쓴 중학생들을 위한 SF 우주과학교과서. 눈깜짝씨의 가족이 케도를 이탈한 혜성의 위험으로부터 지구를 구한다는 모험과 각 행성, 소행성, 운석, 혜성들에 대한 과학지식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다. (살림·9천800원)

▲영동한 음악가 사티씨=“꿈꾸는 물고기” “말처럼 변장을 하고서” (개를 위한) 영동한 전주곡을 작곡한 사티의 독특한 음악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영동하고 실험적인 작품 때문에 평생 가난과 외로움을 벗어날 수 없었던 사티. 하지만 자신의 꿈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꾸어간 음악에 대한 열정이 잔잔한 감동을 준다. (큰북·작은북·1만2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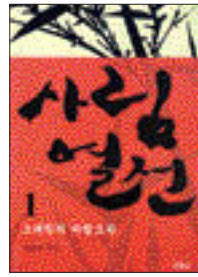
절의 실천한 16C 호남 선비 8명 조명

(節義)

사람열전 이종범 지음

역사는 늘 뚜렷한 족적을 남긴 인물들만을 기억한다. 그러나 영웅의 그늘에는 수많은 호걸이 있었고, 이름을 얻은 거유(巨儒)를 능가하는 선비도 있었다. 이항, 이이, 조광조는 16세기를 대표하는 인물이지만, 절의와 의기, 학문적 역량으로도 결코 뒤지지 않는 경륜을 바탕으로 시대정신을 이끌었던 선비들은 허다하다. 도학과 절의, 문장을 두루 갖춘 김인후나, 이항과 치열하게 사단철정논쟁을 벌였던 기대승이 대표적이다. 최부, 박상, 유희춘, 박순, 이발, 정재경 등도 빼놓을 수 없는 인물들이다. 이들은 '영명은 어쩔 수 없으나, 역사는 바꿀 수 있다'는 신념으로 칼을 받았고, '별론의 화'마저도 기꺼이 감내한 위대한 패자들이다.

'사람열전'은 16세기를 치열하게 살았던 선비들의 삶과 사상을 통해 사림(士林)시대가 열린 지력을 살펴보고, 현재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을 돌아보는 책이다. 전 3권으로 기획된 시리즈 가운데 이번엔 출간된 1권 '소쇄원의 바람소리'는 삶과 죽음을 걸고 절의를 실천했던 16세기 사림 가운데 호남



임금·신하 경연모습 실록 기초 재현 시문·서간 통해 인물 내면 읽어내기



호남 유림이 김인후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 조선 선조 때 창건한 장성 필암서원.

에 연고를 둔 여덟 선비를 조명한다. 저자 이종범(조선대 사학과) 교수는 8명의 인물들을 16세기의 정치·학문적 위치에 자리매김한 뒤 단편적으로만 알려졌던 이들의 행적을 총체적으로 살핀다. 임금과 신하들이 마주앉아 토론하던 경연(經筵) 모습, 정치현안을 둘러싼 임금과 신하들의 갈등, 선비들의 움직임 등이 실록을 바탕으로 생생하게 재현된다. 여기에다 역사서 뿐 아니라 당시의 시문(詩文)과 서간을 통해 정치적 상황과 인물의 내면까지 읽어내는 저자 특유의 날카로운 통찰력을 엿볼 수 있다. 나중에서 출생한 최부는 예년의 '임금궁법순례행기',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과 함께 세계 3대 기행문학의 하나로 꼽히는 '표해록'의 저자다.

그는 연산군의 방종과 타락, 훈구파의 내내와 무능을 거침없이 비판한다. 흥선대원군 전횡적인 사람관료였다. 그는 임금의 인척에게까지 비판의 칼을 들이댔던 결기 때문에 죽음을 맞았다. 그는 '동국통감'을 개편하면서 '역사는 승패의 차원이 아니라 곧고 바른 의지, 절의의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독특한 사론(史論)을 제시하기도 했다. 선조 때 재상을 지낸 박순은 윤원형의 세도를 무너뜨린 주역이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맑고 깨끗한 삶을 실천했던 그는 '사림재상'으로도 불렸다. 이종범 교수는 '희생과 관용, 인륜과 도덕을 실천했던 선비 8명의 삶을 통해 오늘날의 삶을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침이슬·1만3천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내 인생 한편의 책

마빈 해리스의 '문화의 수수께끼'

'인도에서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암소를 잡아먹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부분 사람들은 '암소'가 힌두교도들에게는 기독교의 성모 마리아쯤으로 신성시되고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그런 힌두교의 정신적 영향으로 육체적 욕망을 누르고, 비록 굶어죽을지언정 암소를 잡아먹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나 역시 그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 마빈 해리스의 '문화의 수수께끼'를 읽기 전까지는. 하지만 미국의 문화인류학자인 마빈 해리스는 그러한 예단을 뒤엎고 만다. 그는 말한다. 인도의 암소들은 농업의 효율, 즉 생산력 증가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도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거나, 농경지를 정리할하는 수소는 산업복합체 사회에서의 트랙터의 개념이며, 암소는 그 트랙터를 생산하는 트랙터 생산 공장의 대체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인도의 소들은 미국의 소들보다 사회적으로 훨씬 더 유용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도의 암소는 매년 7억 톤의 분뇨를 배설한다. 이 배설물의 반은 비료로 사용되고, 나머지 대부분은 연료가 된다. 하층 카스

문화와 의식은 삶의 뿌리다



트들은 이 유용한 암소의 똥을 거두는 독잡관이 있어 거리를 방황하는 암소들로 인해 생계를 꾸리기도 한다. 그리고 암소에서 짜내는 우유는 많은 가난한 인도 가정의 영양식으로 충당된다. 마빈 해리스는 바로 이런 생태적인 환경 때문에 식탁에 맛있는 스테이크용으로 소를 죽이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유용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마빈 해리스는 그저 그런 전통들이 뿐이었던 한 사회의 문화나 의식이 얼마나 삶의 뿌리와 깊이 맞닿아있는지를 생생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과 회교도인들이 돼지를 혐오하고 금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한 뉴기니아와 남태평양 멜라네시아에 있는 돼지 숭배자들의 전통에 관하여는 어떻게 설명할까. 원시전통의 이유를 밝힐 수 있는 마빙족의 전통의 원인은 어디에 두고 있을까.

서양인의 눈에는 터무니없는 과시욕처럼 보여지는 선물나누기를 의미하는 파키스탄족의 포트라위의 축제는 왜 일어난다고 있는 것일까. 또한 뉴헤브리드족의 비행기나 배의 화물숭배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 책의 각 장은 상호 독자적인 근거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한 줄로 풀 수 있는 해답이 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사회적 삶의 진실을 파악하는데도 매우 유용하다.

신성화와 정신화의 가면을 쓴 문화의 여러 현상들이 물질적인 요인, 즉 문화생태학적인 측면에서부터 경제적 측면, 사회·정치·종교적 등으로 상호 연관관계를 파악하는 통찰적인 고찰이 꼭 필요하다. 실제 생활하고 있는 행동양식, 그 자체가 우리의 진실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최근 문화중심도시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지역의 여러 경향도 구체적인 현실분석에 들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순을 꿰뚫는다면, 그것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인 양 결코 숭배만 하고 있는 것은 없을 것이다.

김효균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시민문화팀장)



사진 결들인 그림책 대부의 자서전

나의 그림책 이야기 존 버닝햄 지음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 작가 존 버닝햄이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냈다. 존 버닝햄은 '깃털 없는 거리가 보르카'와 '검피 아저씨의 드라이브'로 영국 최고의 그림책에게 수여하는 케이트 그리너웨이 상을 두 번이나 받았다. 또 뉴욕 타임스의 '최우수 그림책 상', 독일 아동 문학상 등 그림책과 관련된 세계의 여러 상을 휩쓴 그림책의 대부다. '존 버닝햄-나의 그림책 이야기'는 자서전이다. 저자는 주거용 트레일러를 타고 전국을 돌던 어린 시절부터 전 세계의 어린이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자신의 그림책이 나오게 된 배경까지 진솔하게 밝히고 있다. 소재 발굴 과정과 스케치 및 사진 자료들이 결들여진 이 책은 저자의 책을 접했던 독자들은 물론, 일러스트레이션이나 그림책을 그리고 있는 전문가들에게도 좋은 교본이 될 만하다. (비룡소·2만5천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손정의 꿈을 위해 어떻게 살았나

일본의 제일부자 손정의 이노우에 지음

세계적인 권위를 갖추고 있는 미국의 경제지 '포브스'가 지난날 발표한 '일본 부호 40인'의 맨 뒷자리는 다음 아닌 한국인 '손정의'의 몫이었다. 자산 총액은 70억 달러(약 6조5천억원). 빌 게이츠를 인터뷰했던 일본의 유명 저널리스트 이노우에 아쓰오는 '일본의 제일부자 손정의'를 쓰기 위해 20년 가까이 그를 취재해야 했다. 손정의 본인이 쓴 책의 추천사에는 "이 글 속에는 제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한 '손정의'가 살아 숨쉬고 있다"고 적혀 있다. 저자는 책을 위해 손정의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초등학교 은사, 모교인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 캠퍼스, 손정의의 핏줄인 대구 등을 찾는 열정을 보여준다. 책은 재일교포 3세로 태어난 '조센진'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김영사·1만900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첨단월계공인중개사
첨단중심 상업지역
첨단 원룸 건물급매
첨단 아파트 인공 투자지
상가건물
첨단 인공 자연·생산녹지
광산구 도천동 하남산단 4번도로
경관중용 종교용 최적지
자연 준공업지역 급매

금부부동산신선실링
토지매매
임야매매
건물매매
고시원 매매
주유소 및 주유소 부지매매
원룸 매매

팜 부동산서비스
영혼과 마음의 안식처
[담양군 봉곡면 가곡리] 3000평
[담양군 봉곡면 가곡리] 2000평
[담양군 봉곡면 가곡리] 1000평

금천공인중개사
정원공인중개사
한 일 지도 (주)
2006 최신 광주시 지번도 책 판매중
이번에 새로 나온 광주시 책은
광주·전남 전지역
임대 매매 전문중개업소입니다.

에셋코리아 부동산신선실링
법원경매
아파트
농지
근린주택
주택
다가구(친문)
근린주택
임야
다가구(친문)
공공